
기획논문

청대 고증학과 중국 경전 주석의 이론과 실제

중국에서 경학이 학술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이후, 어떠한 담론도 경학이라는 틀을 통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경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관건이 되었다. 그리고 고대 중국에서 이러한 경전 해석의 구체적 방법은 바로 주석 작업이었다. 경전이 성립한 이후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주석이 축적되었고, 현재 우리가 경전에 다가갈 수 있는 것도 이러한 다양한 주석의 축적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 가능하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연구만큼 각각의 개별 주석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기획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논어』에 대한 청대 고증학적 성과를 담고 있는 대표적 저작인 『논어정의』(論語正義)를 중심으로 청대 고증학적 성과가 경전의 주석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논어정의』는 청대 유보남(劉寶楠, 1791-1855)과 유공면(劉恭冕, 1826?-1885) 부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책으로, 청대 건륭(乾隆), 가경(嘉慶) 시기의 대표적인 학술유파인 오파(吳派)나 환파(皖派)를 뛰어넘는 양주학파(揚州學派)의 특징을 갖고 있는 책이다. 양주학파는, 전문적인 학술 영역을 구축한 오파와 정밀한 분석이 뛰어난 환파를 통합하여 계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양주학파의 학문적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저작이 바로 『논어정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어정의』는 『논어』에 관

한 역대 주석 가운데 그 성취도가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논어정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논어정의』는 『논어』에 대한 주석서일 뿐만 아니라 역대로 형성된 『논어』에 관한 주석을 함께 주석하고 있는 책[疏, 正義]이다. 즉, 논어학사에서 『논어』에 대한 대표적 주석서로 뽑는 하안의 『논어집해』, 황간의 『논어의소』, 형병의 『논어소』, 주희의 『논어집주』의 주석을 채택하여 오류를 교정하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으며, 당대의 『논어』에 관한 저명한 여러 설을 채집하여 함께 주석하고 있다.

둘째, 청대 학자들의 경전에 대한 해석 작업은 중국의 고전문헌이 원시텍스트(prototext)에서 필사본, 그리고 목판본으로 전화(轉化)하는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청대 학자들은 이전에 해결할 수 없었던 경전에 나타나는 많은 난제들을 해결하였다. 여기에 실증성, 전문성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시대의 학문정신으로 대두된 고증학적 방법으로 경전에 접근하여, 역사적 사건과 배경을 실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명물훈고와 전장제도에 대한 고증에서 높은 성과를 내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청대 주석은 성리학적 주석에 비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고증학적 성과가 여실하게 반영되는 것이기에 주석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본 기획논문을 위한 적절한 학문체계이다.

청대의 학술이 대부분 그러한 것처럼, 이 책 역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전공 영역의 개별 연구자가 단선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집체적인 논의가 효과적이다. 즉, 『논어정의』는 구성의 치밀함과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방대한 분량 등으로 인해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공의 구성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그 학문적 성과를 좀 더 여실하게 밝혀낼 수 있다. 또한 주석에 반영된 학문적 성과를 『논어정의』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나아가 청대 고증학적 학문성과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로 확대시키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이번 기획논문 준비팀은 준비과정에서 청대 고증학에 대해 좀 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담론으로 발전하는 좋은 동기부여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이번에 4편의 논문을 완성하게 되었다.

「논어정의는 어떻게 집필하였는가?」는 이 책의 전체적인 저술과정과 구체적인 집필 작업에 대한 고찰을 한 글이다. 이 과정에서 고증학적 저작의 한 특징으로 장편(長編)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장편이란 정식 책의 집필 이전에 먼저 방대한 자료의 수집을 한 후 자료집성이나 초고본을 먼저 작성한 것을 말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처음 유보남이 이 책을 구상하기 시작해서 유공면에 이르러 완성되기까지 40여 년의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인용서목을 살핌으로써 이 책의 특징에 주의를 하고 있다.

「논어정의에 나타난 노론(魯論)」은 이 책에 인용된 노론을 통해 그 이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이 갖는 학술적 가치를 논하고 있다. 한(漢)나라 초기에 있었다는 『논어』의 세 가지 판본, 즉 노론(魯論), 제론(齊論), 고론(古論)은 현재 모두 소실된 상태이고 다른 책에 인용된 것을 통해서만 단편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논어정의』는 기본적으로 고론을 주요 텍스트로 한 것임에도 노론에 대한 언급을 48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 48구절의 유형을 분류하고 노론에 대한 언급을 통해 이 책이 갖는 청대 고증학적 학문성과에 대해 논하였다.

「논어정의의 『설문해자』(說文解字) 인용 연구」는 문자학적인 측면에서 『논어정의』의 성과를 살피는 작업이다. 이 논문에서는 『논어정의』에 『설문해자』가 어떻게 인용되어 있고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를 통해 고증학적 주석에서 문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다루는 방식을 살피고 있다. 『논어정의』는 어떤 주석을 할 때 반드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설문해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청대의 학술에서 설문학(說文學)이 흥성했는데, 이것이 문헌에 대한 주석에서 구체

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은 고증학적 경전 주해의 방법론과 그 실재를 살피는 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유보남이 주석 과정에서 경문에 쓰인 글자의 의미를 검증하고 설명하는 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알게 해준다.

「논어정의에 나타난 허사 설명의 특징」은 문법학적인 측면에서 『논어정의』의 성과를 살피는 작업이다. 청대 고증학에서 허사 해설의 최고봉은 왕인지(王引之)의 『경전석사』(經傳釋詞)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유보남이 왕인지의 글을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현대 문법학적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다루는 것을 통해 고증학에서 문법학, 허사학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이상 네 편의 글은 단순화할 경우, 『논어정의』의 형성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논어정의』에 인용된 노론을 통한 판본학적 연구, 『논어정의』의 주석에 보이는 『설문해자』를 통한 문자학적 연구, 『논어정의』에 인용된 『경전석사』를 통한 문법학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의 두 편은 문헌학적 연구이고 뒤의 두 편은 언어학적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을 기획하면서 의도한 것은, 이 네 편의 연구가 개별적인 논문으로서의 의미 이상으로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것은 중국 경전 주석의 이론과 실제 속에 보이는 청대 고증학적 성취를 살피는 일이다. 또한 이 연구는 이번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논어정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며, 청대 고증학적 특징을 갖는 다른 주석서의 연구에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재